



2013 24th College Dance Festival

대학춤, 르네상스를 꿈꾸다



제24회 대학무용제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Tel 051,999,5301/010,8234,2342 Fax 051,305,3111 E-mail kang_a33@naver.com

2013 College Dance Festival

운영위원장 정신혜 신라대학교

운영위원 김복선 동아대학교

주수광 부산대학교

한은주 경성대학교

STAFF

예술감독 정신혜 무대감독 서종철 조명 곽동인 진행 강아름
음향 박미향 사진/영상 이브스튜디오 디자인 춤판단컴 HJ

제24회 대학무용제

대학춤, 르네상스를 꿈꾸다

2013 세 개의 춤비전

1 내일의 춤 대화 2013. 10.20 SUN 17:00
심포지엄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 강의실B

2 행복한 춤 2013. 10.20 SUN 19: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Lyutov Vladimir <Sogno Veneziano>

* 강미리 <마음의 고 - 웃음을>

* 주수광 <The Navy>

* 강선구 <see a heaven in a wild flower>

3 꿈꾸는 춤 2013. 10.22 TUE 19: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대학무용진흥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신라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협찬  부산은행  문의 051.999.5301 / 010.8234.2342

본 공연은  부산문화재단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서지영
Seo Ji-young
부산무용협회장



높아진 하늘만큼 바다 내용이 감도는 부산, 자연의 호흡과 인간의 몸짓이 어우러진
춤으로 사람을 품고 바다를 여는 아름다운 곳에서 제24회 대학무용제가 열리게 되어
기슴이 설레입니다.
올해로 스물네 번째 맞이한 대학무용제는 '대학춤,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와 공연 등 우리
지역 대학의 무용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하나 되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대학무용제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웃날 우리 무용계에 새 역사로 남아
주기를 바라 봅니다.
'위대한 무용기란 테크닉이 아닌 그 안의 열정으로 평가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뜨거운 열정과 이 젊은 춤꾼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의 예술과 교육의 진정성에 관객
여러분들께선 힘찬 박수와 응원으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울러 대학무용제에 오신 모든 분들의 기슴에 춤이 가진 따뜻한 온기를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운영위원회들과 인무자, 출연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며 제24회
대학무용제의 주제인 '대학 춤, 르네상스를 꿈꾸다.'처럼 춤이 오늘날 세상 속에 다시 한 번 크게 날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희망과 도약의
의미를 담아...

정신혜
Jung Shin-hye
제24회 부산대학무용진흥회 운영위원장 및 예술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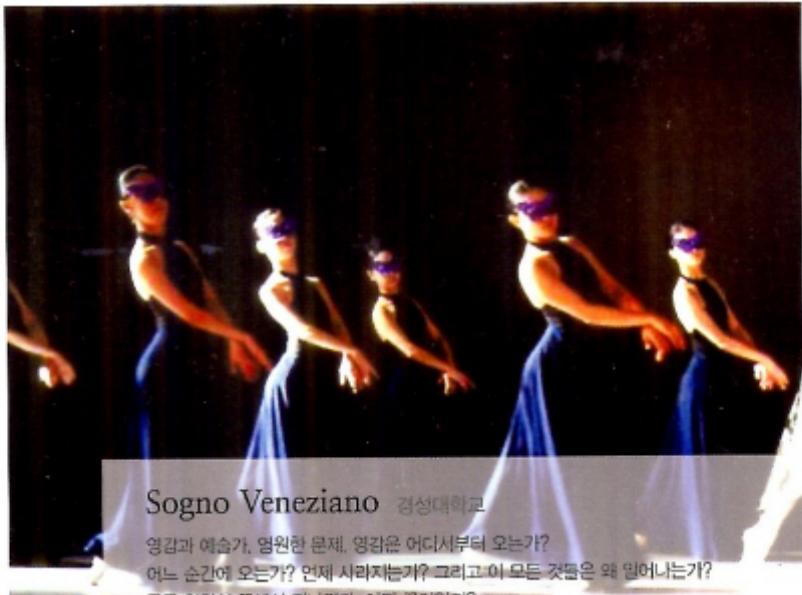


스물네 번째 대학무용제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헤어지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지요,
나는 변치 않았는데 네가 변했다고,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고...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는 구절이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 속에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가치의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 믿음 앞에서 오늘도 당당히 춤추는 서투른 춤꾼들과 또 그들에게 선뜻 등을 내어주는 대학무용계의
끊임없는 도전은 올해도 아낌없이 이어집니다.
먼저 '행복한 춤'에서는 각 대학 교수님들과 제자들이 하나되어 춤으로 만나는 무대를
둘째 '꿈꾸는 춤'에서는 학생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무대에 옮겨 참신하고 창의적인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춤 대회'를 통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여 무용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학문적 위상을 자리매김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의 무용교육은 무용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데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시대의 요청에 발빠르게 대응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침없이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춤이라는 힘을 품고 춤진하는 우리는 흡사 돈키호테처럼 비춰질 것이며 현실과
이상이라는 경계에 서 있는 그것이 곧 대학무용이 차례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올해 제24회 대학무용제는 '대학춤,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부제를 통해 희망과 도약의 의미를 담아
힘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존중되고 자극적인 불거리들이 넘쳐나는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예술인 몸짓의 언어로 다가가는
젊은 예술가들의 춤이 이를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닿을 수 없는 저 범하늘의 별을 떠는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작품으로 무대를 빛내 주신 교수님들과 또 그 속에서 열정을 꽂 피워 준 출연자들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문화재단의 지원과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의 후원, 그리고 각 대학 교수님들, 영화의전당과
부산문화회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춤예술의 산실인 대학무용의 발전과 더불어 춤의 도시
부산의 젊은 바다 내용이 관객 여러분의 기슴에 자리하기를 빌어 봅니다.

2013년 10월

2013 세 개의 춤비전

행복한 춤 2013. 10.20 SUN 19: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Sogno Veneziano 경성대학교

영감과 예술가, 영원한 문제, 영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느 순간에 오는가? 언제 사라지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왜 일어나는가?
종종 영감이 꿈에서 지나간다. 어떤 꿈이었지?

Now blessings light on him that first invented this same sleep: it covers a man all over, thoughts and all, like a cloak: 'This meat for the hungry, drink for the thirsty, heat for the cold, and cold for the hot.' This the current coin that purchases all the pleasures of the world cheap; and the balance that sets the king and the shepherd, the fool and the wise-man even.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I dislike in sleep.

- Miguel de Cervantes



Lyutov Vladimir 안무

현.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부교수
전. 러시아 바가노바 아카데미 교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레시아티 단원
벨기에 브뤼셀 데브라셀스 발레 단원

음악 A. Vivaldi, J. P. Rameau

출연 오상민, 서정애, 주다솔, 이나겸, 박빛나, 박민영, 김혜원, 서정애, 김보영,
조예령, 김민지, 김수진, 신예나, 하윤자

미롱媚弄 II - 웃음꽃 부산대학교

춘양천의 춤 동작에 물어진 풍자와 사랑 미력을 춤으로 형상화하였다.

새는 소리로 / 봄을 부르고 / 봄은 꽃을 피워 / 화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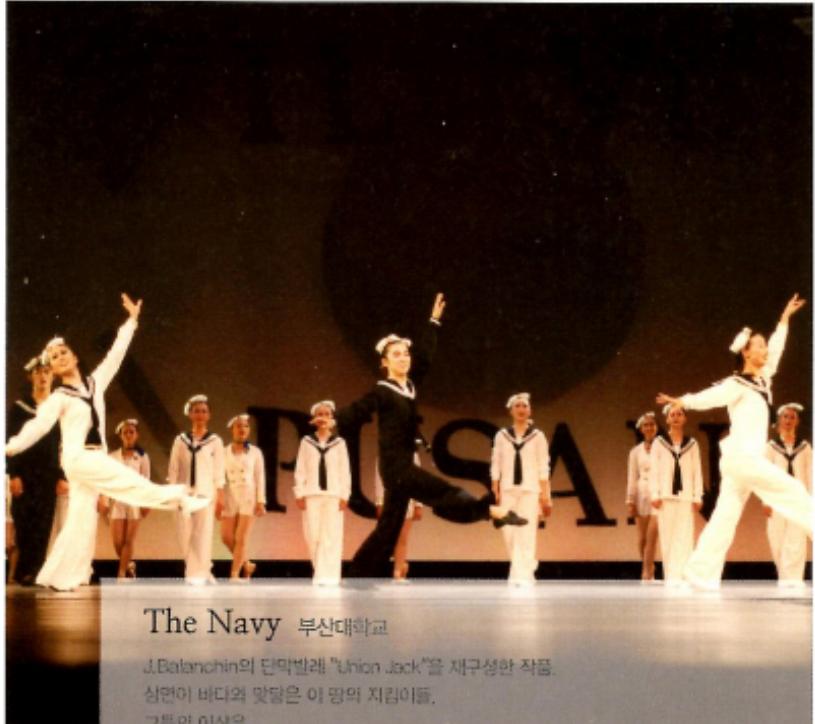
새가 봄은 한 송이 꽃에 / 세상이 담겨 있으니 / 봄이 온다는 것은 / 꽃이 핀다는 것은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 피는 꽃 한 송이마다에 / 다른 웃음이 피어나 / 새 봄



강미리 안무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강미리 할 무용단 예술감독

출연 이정화, 서난아, 류현정, 곽민지, 김기령, 김민서, 윤수양, 이세익, 정미, 고지윤,
김성숙, 김주희, 박지예, 신선혜, 윤혜니, 이정윤, 정서영, 하현정, 현수빈



The Navy 부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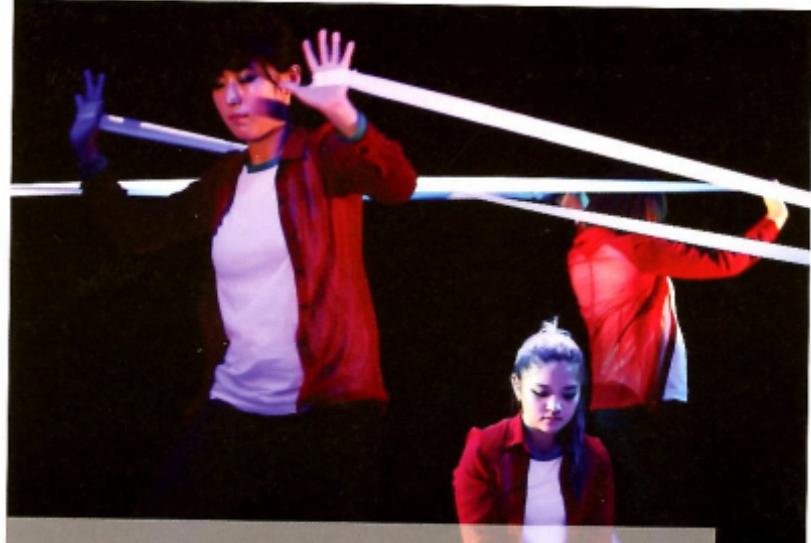
J.Balanchine의 단막발레 "Union Jack"을 재구성한 작품.
상면에 바다와 맞닿은 이 땅의 지킴이들,
그들의 이상은
조국애,
그 뿐인 것을...



주수광 안무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학과장
부산발레연구회 대표

출연 김한나, 윤서희, 정아르외, 박지희, 백수연, 설수민, 신다혜, 안수진, 임수선,
최아경, 헝다은, 권하은, 김민정, 박진희, 안지원, 양지희, 오정윤, 허승빈



To see a heaven in a wild flower 신라대학교

플로드 모네의 작업 중 물을 표현한 작품들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을 시작해 본다.▼
단순히 물리가거나 너울거리는 물결이 아니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을 그림에 담으려고 한 작가의
기법들을 통해 오브제와 라이트의 활용으로 표현해 본다.

- 수면 위의 빛
- 결합의 순간
- 충돌, 굴절, 반사 등의 현상



강선구 안무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대구기쁨극대학원 무용학과 강의전담 교수
Jam있는문화공작소 대표

지도 류주영

출연 정아름, 문성미, 지은이, 이경민, 이태우, 강민지, 박진이, 김선경, 전원빈, 문다은, 양휘성, 정채희

2013 세 개의 춤비전

꿈꾸는 춤 2013. 10. 22 TUE 19: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013 24th College Dance Festival



문 두드리다 경성대학교

우리는 다만
닫힌 문을 바라보며
꿈을 그린다.

인무 오성민
출연 박빛나, 서정예, 오상민, 이나경



生: 순리 IV 부산대학교

영동한 물방울 모여 맷히니 곧 생명의 씨앗이라. 다시
퍼지고 흘어져 고요히 흘러가니 이것이 순리로다.
삶이 어찌 순탄하기만 하겠는가!
요동치는 생명이며, 다시 흘러 맷히어라.

인무 공동안무
출연 지유리, 최다연, 박유빈,
임승희, 오지예, 우지연



말(Horse) 신라대학교

풀 속에 갇힌 말.

인무 최지영
출연 최지영, 이종윤,
손정아, 변예진



마지막 발걸음 동아대학교

왜곡과 오해로 얼룩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 사형 판결 후,
그녀의 마지막 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다.
미련, 후회, 두려움...
그러나 그녀는 이제 가야만 한다.

인무 김은애
출연 이은, 백가람



동화되다 경성대학교

감각이나 지각에서 같은 성질을
서로 당긴다.

인무 명상이
출연 명상이, 이금아, 하다함, 이태훈



족 신라대학교

바닥과 만나는 발바닥, 얼굴에 닿는 물,
손과 손이 서로의 온기를 느낄 때 그 때의 닿는 감촉들과
들리는 소리에... 보이는 모양과 색깔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에...

인무 박성아, 이경아
출연 박성아, 이경아



Connection dot 부산대학교

실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무수한 연결점을
만들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있다.
개인의 점들이 모여 갈등을 겪고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된다. 우리 역시 수많은 점들 중 하나일 뿐이고,
결국 서로 연결되어 큰 세계를 이룬다는 것을...

인무 이유미
출연 구서희, 김유정, 이유미,
이문정, 융슬기



수.련 신라대학교

수련 꽃봉오리들이 웅얼이하며 보드랍게 피어 있고
자꾸 감추고 싶어 하는 물안개의 부끄러움이 있다.
아직도 미음 한 쪽 끝에 불집고 있는 공복의, 피릇한 허기 같은
그리움. 그 사이에서 촉촉하게 젖은 마알간 눈
그 눈빛이 너를 불러온다.

인무 김수련
출연 김수련, 박서연, 제현술



너와 내가 있기에人 경성대학교

제없이 회장터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한 이를 모를
이들을 추천하고, 그 원인인 개인화에서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를 희망한다.

인무 및 출연 박세준



생존의 울타리 동아대학교

현대 사회인들은 이기심과 허영심 그리고 지나친 욕심으로 진정한
삶의 목표를 잊어 가지고 있다. 타락하는 인간성과 무너져 가는 인간관계를
우리들은 인타깝게 바라보고 경험한다. 이 작품은 현실적으로
왜곡된 인간 존재의 방식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심리적 갈등과
단면을 현대무용 특유의 움직임으로 형성화하고자 한다.

인무 최예진, 한지연, 김소이, 강동원
출연 최예진, 한지연, 김소이, 강동원



Festival 부산대학교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축제가 시작되었다.
육체와 음악이 하나되는 신들의 축제
사랑하지! 사랑하자! 사랑, 사랑, 사랑...

인무 공동인무
출연 권수경, 김수민, 김진은, 서소영,
송혜경, 이현진, 정희원, 한유빈

S

심포지엄 Symposium

2013 세 개의 춤비전

내일의 춤 대화

심포지엄 - 주제 : 예술복지확대를 위한 지역사회무용의 활성화

2013. 10. 20 SUN 17:00 - 19:00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 강의실B

좌 장 芮인주 신라대학교 교수

발제자 최성옥 충남대학교 교수 이태상 신라대학교 교수 김현주 한국라반음직임연구소 소장

토론자 박은화 부산대학교 교수 노영재 동아대학교 강사 김해성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심포지엄 연혁

년도	주제	발제	조찬	사회
제1회 1997. 10. 30	부산 춤의 미래와 대학 춤의 새로운 기능 모색 대학 춤집단원발표회의 전망과 의미	김태형 교수 체희원 교수	화정애 교수, 김문이 교수 최은희 교수, 김미숙 교수	황민주 교수
제2회 1998. 11. 04	대논제 : 대학의 무용 - 그 전망과 기대 소논제 : 대학무용의 현况, 지역사회에서 대학무용의 역할, 대학사회에서 무용의 위치와 기능	김정숙 교수 김은경 교수 정정윤 교수	정귀연 교수, 최은희 교수 김정순 교수	안혜리 교수
제 3회 1999. 10. 27	대논제 : 무용전공자와 전망 소논제 : 부산지역무용과 춤집단들의 사회진출방향 무용전공자들의 지로 설정을 위한 대학교육	김태형 교수 정정윤 교수	이명희 교수, 최은희 교수 신정희 교수, 하정애 교수	김은경 교수
제 4회 2000. 09. 28	미디어무용의 발달과 현황	송종건	하정애 교수, 신정희 교수 김은이 교수	안혜리 교수
제 5회 2001. 09. 13	대논제 : 춤 예술 활동변화에 따른 대학무용교육의 발전 방향 소논제 : 경쟁적 예술인 양성을 위한 대학무용교육의 발전방향 을 예술 활동변화에 맞추어 대학무용학과의 문제점	황민주 교수 체희원 교수	하정애 교수, 신정희 교수 안혜리 교수, 문여숙 교수	체희원 교수
제 6회 2004. 11. 23	대논제 : 무용개학의 통한 무용예술 대중화 방안 소논제 : 무용교각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학 미술교과 변환의 개선을 위한 방안 번역하는 와국의 무용교육 현장시사	김화순 교수 최은희 교수 장정윤 교수	김정순 교수, 황민주 교수 한미리 교수	체희원 교수
제 7회 2005. 09. 13	주제 : 지역사회 대학 무용 발제1 : 미학적 관점에서의 무용과 시화의 관계 발제2 : 지역사회에서 대학무용학과의 역할 - Community dance 활성화 방안	기조발제 : 체희원 교수 장정윤 교수 한혜리 교수	하정애 교수, 김미리 교수 김미리 교수, 박은화 교수 김은이 교수, 이경희 교수	신정희 교수
제 8회 2006. 10. 12	주제 : 대학무용교육의 미래 - 안보영역의 확대와 부산지역 공연활성화 방안 발제1 : Dolor을 활용한 안무기법 모색 발제2 : 안무영역의 확대와 부산지역 공연장 활성화 방안 발제3 : 부산시 무용공연 지원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박연애 교수 이상정 교수 황민주 교수	김정희 교수, 황민주 교수 최은희 교수, 주수광 교수 김정순 교수, 김민숙 교수	하정애 교수
제 9회 2007. 10. 31	주제 : 문화·무용·교육 발제1 : 문화예술교육의 발달과 기능 - 대개자 논의를 중심으로 발제2 : 상상력과 나의 몸 - 우리세대의 문화와 상상력에 대하여 발제3 : 만남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	현효관 교수 조요경 교수 정정윤 교수	김은이 교수, 정귀인 교수 황민주 교수, 오세복 교수 장정윤 교수, 황민주 교수	안혜리 교수
제 10회 2008. 09. 24	주제 : 21세기 새로운 문화정보와 춤 발제1 : 21세기 새로운 문화지향과 춤 예술의 융합 발제2 : 무용예술의 21세기 정보와 춤의 가능성	체희원 교수 김재현 교수	오세복 교수, 장정윤 교수 황민주 교수	최은희 교수
제 11회 2009. 10. 16	"무용예술을 위한 안무 구성 탐구" 발제1 : 자발타이어 주체적인 몸 움직임 (Spontaneous and Autonomic Moving = body) 발제2 : 댄스시네마 장르의 성립에 대한 시도와 고찰 - 카페리로서의 신체	조기숙 교수 권병철 교수, 국은이	김미리 교수, 김민숙 교수 박은화 교수, 최은희 교수	장정윤 교수
제 12회 2010. 10. 29	현 시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무용계 성찰 발제1 : 현시대의 무용활동에 나타난 주요개념의 양상 발제2 : 한국무용교육에 관한 무용전공학생들의 인식조사	정정윤 교수 김경희 교수	김미리 교수, 정진애 교수 최은희 교수	최은희 교수

당신의 땀이
감동을 만듭니다

짧은 선을 하나에도
땀과 노력을 쌓아내는 당신
세상에 큰 감동을 주는 선율위에는
늘 당신의 빛나는 팬팅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북북히 훌린 땀을 멀습니다

BS부산은행이 아름다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함께 할까요!
BS 금융그룹
부산은행